

<미래연구정보포럼 2021>

#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가치평가

2021. 12. 02.

한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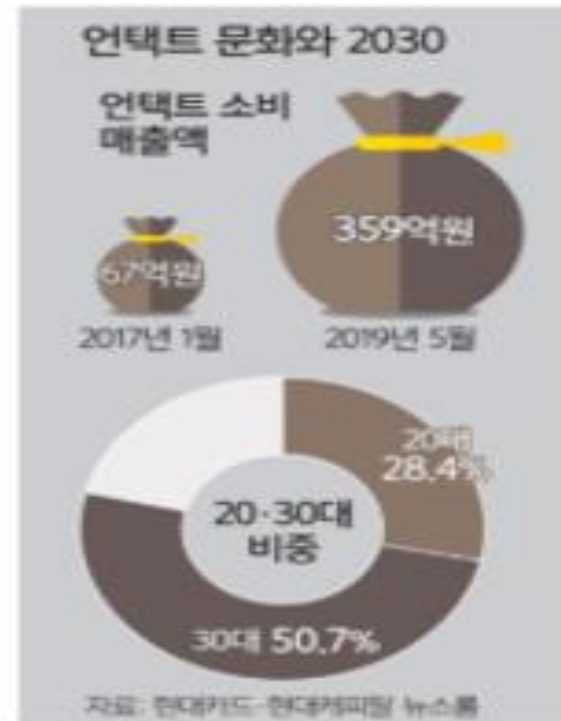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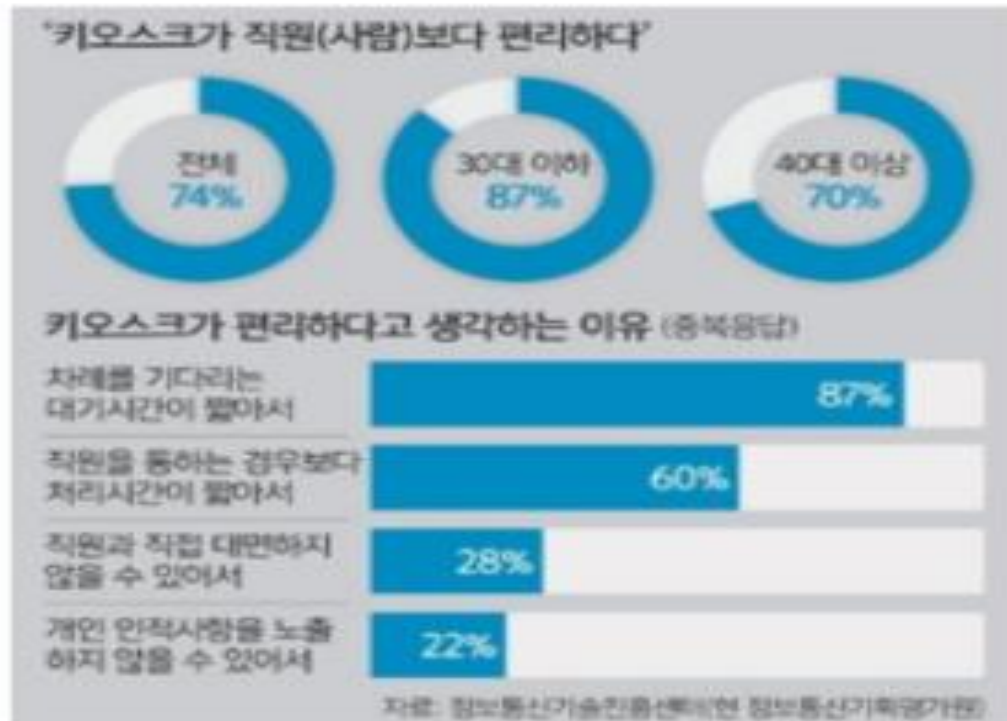
박성욱 교수

# Quiz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gital Economy and the Data Economy?





# Untact 정의

- Untact: Un+Contact,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을 의미
- Z세대(1995년 이후)



자료: <https://www.mobiinside.co.kr/2019/07/23/it-untact/>

# 대한민국 세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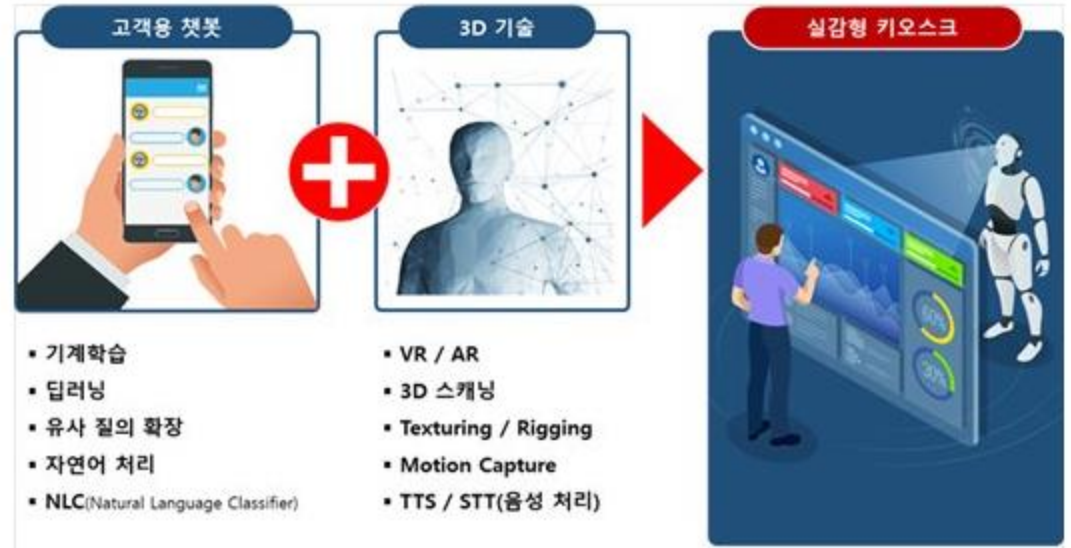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세대 구분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Y세대)		Z세대	
출생 연도	1950~1964년	1965~1979년	1980~1994년		1995년 이후	
인구 비중	28.9%	24.5%	21%		15.9%	
미디어 이용	아날로그 중심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	전후 세대, 이념적	물질주의, 경쟁사회	세계화, 경험주의		현실주의, 윤리 중시	

대한민국 세대 구분 (출처 : 통계청, 맥킨지코리아)

# Untact 사례



전체 도소매 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 기준(왼쪽), 판매 매체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 [출처: 통계청]



와이즈넷(WISEnut)의 실감형 키오스크 컨셉트. [WISEnut 제공]

자료: <https://news.join.com/article/23758944>

# 코로나 언택트 시대, 핵심기술=CORONA

## **C**loud(클라우드)

재택근무·화상회의·온라인 수업...  
비대면 산업 급성장에 수요 폭발

## **O**n-demand(온디맨드)

점속공간 오프라인→온라인 이동  
전시장·콘서트가 AR·VR로 재탄생

## **R**emote(원격)

원격업무·교육·의료 등 신성장 동력  
비대면 플랫폼 전통산업으로 확장

##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무선 데이터 60%가 동영상에 집중  
콘텐츠 시장의 다크호스 '패속질주'

## **N**etwork(5G 네트워크)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화질 저하  
전송속도·규모 뛰어난 5G도입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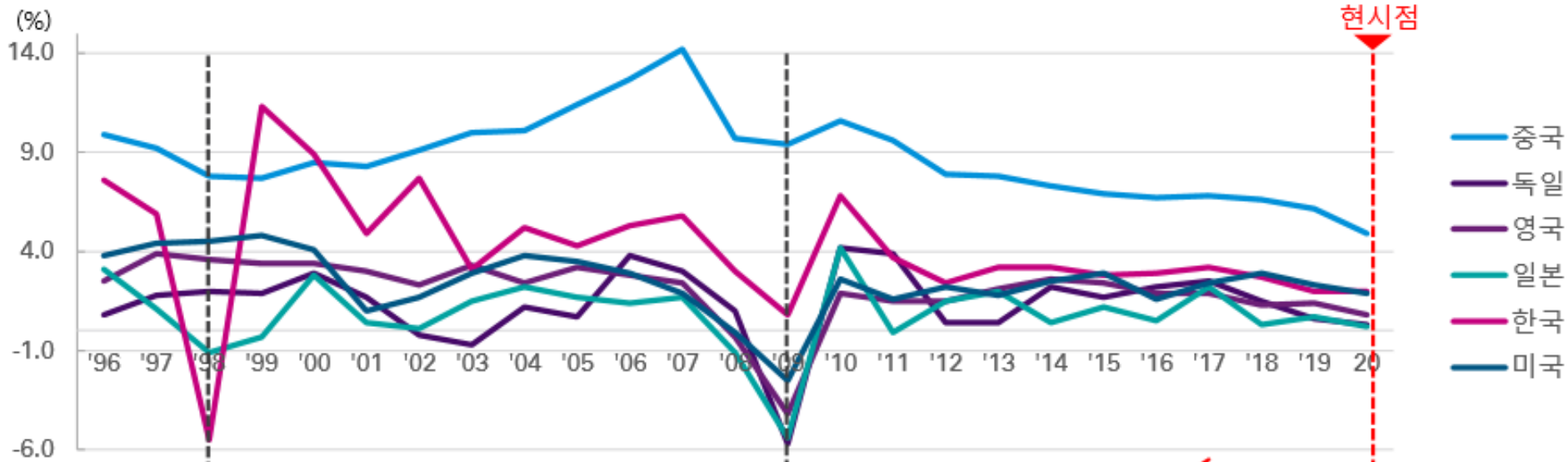
## **A**I(인공지능)

코로나19 확산 사람보다 먼저 예측  
감염병 위기 예방·치료 기술 급부상

자료: 해럴드경제(2020.05.10)

# IMF & 금융위기 &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역사를 통해 되풀이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 뉴욕대 N. Roubini 교수  
 "위기 발생 자체는 통제 불가능, 기업위기 극복의 필수조건은 리질리언스" - MIT Yossi Sheffi 교수



현시점

- 중국
- 독일
- 영국
- 일본
- 한국
- 미국

##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의 급격한 자본유출과 외화유동성 부족
- 기업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신용경색

'태국 → 동아시아로 국지적으로 위기 전이'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선진국 자산(부동산) 버블의 붕괴, 증권화 금융상품의 손실 확대와 확산
- 은행 연쇄도산과 신용경색

'선진국 → 전 세계로 금융위기 전이'

## ✓ '20년 코로나19 팬데믹

- 주요국으로의 전염병 급속한 확산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폐쇄 조치
- 글로벌 공급망 훼손, 원유가 폭락, 기업 경제활동 마비 및 소비의 급격한 감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하방 위험 증가 및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 증대'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구분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대응과제
보건환경	간헐적 감염병	감염병 빈발	①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②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글로벌 조달	로컬 조달	③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구축
경제환경	대면 석유수요 증가	非대면 석유수요 감소	④ 비대면산업 육성 ⑤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기업경영	비용절감, 효율	재고확보, 회복력	⑥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활성화
사회가치	개인·효율	연대·협력	⑦ 기업간 연대 및 협력
교역환경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보호무역	⑧ 글로벌 협력 리더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5)



# 공유경제 & 고립경제

- 공유경제: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모델 (출처: 위키백과)
- 고립경제: 외부 사회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자신들의 생산물을 외부 사회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자급자족하는 경제. 현대 사회에서는 국제간의 통상 무역이 없는 경우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인터넷 경제, 정보 경제, 네트워크 경제, 지식기반 경제 정의

- 인터넷 경제: 주로 경제활동이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로 좁은 의미의 디지털 경제 개념
- 정보 경제: 디지털 경제와 유사한 정의를 가지는 개념으로 생산 요소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
- 네트워크 경제: 디지털 경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네트워크 망을 통한 정보의 전달을 중시
- 지식기반 경제: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로 디지털화할 수 없는 지식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 디지털 경제 정의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1995)가 물질 최소 처리단위인 원자(atom)에서 정보 최소 처리단위인 비트(bit)로 이전되는 양상을 설명하면서 은유적으로 사용
- 정보가 물리적 혹은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전환
-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정보기술에 기반한 경제
-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지식기반 경제도 디지털 경제에 포함

# 데이터 경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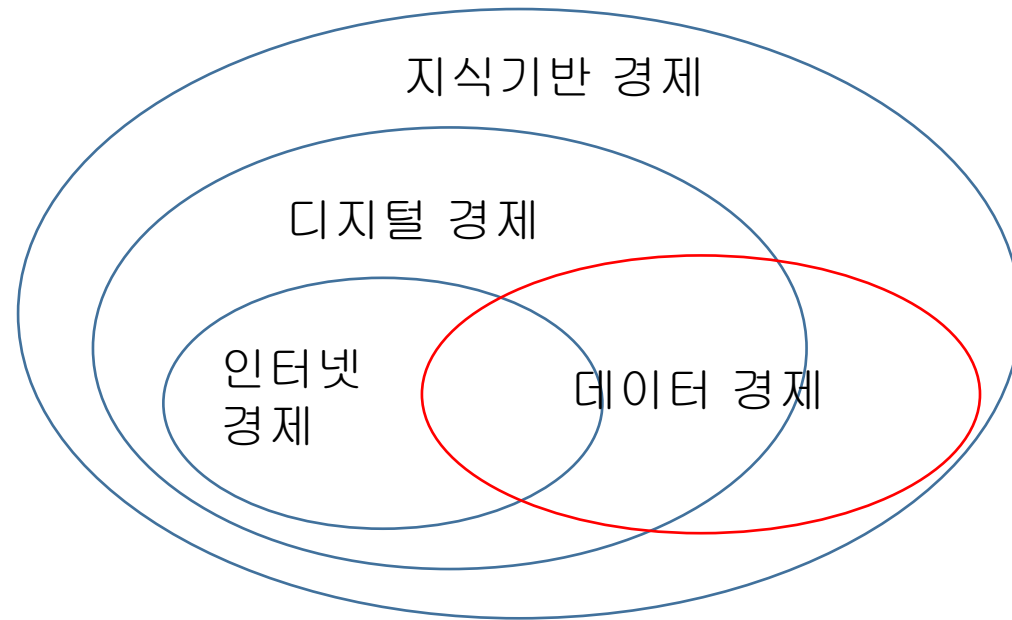
- 2011년 데이비드 뉴맨이 가트너 보고서에서 데이터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로 파생되는 경제로 정의
-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경제구조 (백인걸, 최영상, 2018)
-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배, 전달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European Commission,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 조직의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 검색, 분석해서 비즈니스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제적 가치로 정의(Digital Reality, 2018; NIA, 2018)

# 디지털 경제 &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가치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창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치창출
시기	1995년	2011년
기반	사이버기반 네트워크, 상호연결성	사회적 기반 플랫폼, 데이터 제도
상품	온라인 서비스	인공지능, 의사결정 지원

자료: 구글

# 디지털 경제 & 데이터 경제



자료: 박성욱(2021)

# 데이터 3법 개정안

- 데이터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
-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AI, 클라우드,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반면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
-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협치(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발의(18.11.15)
-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0년 8월 5일 시행

# 데이터 3법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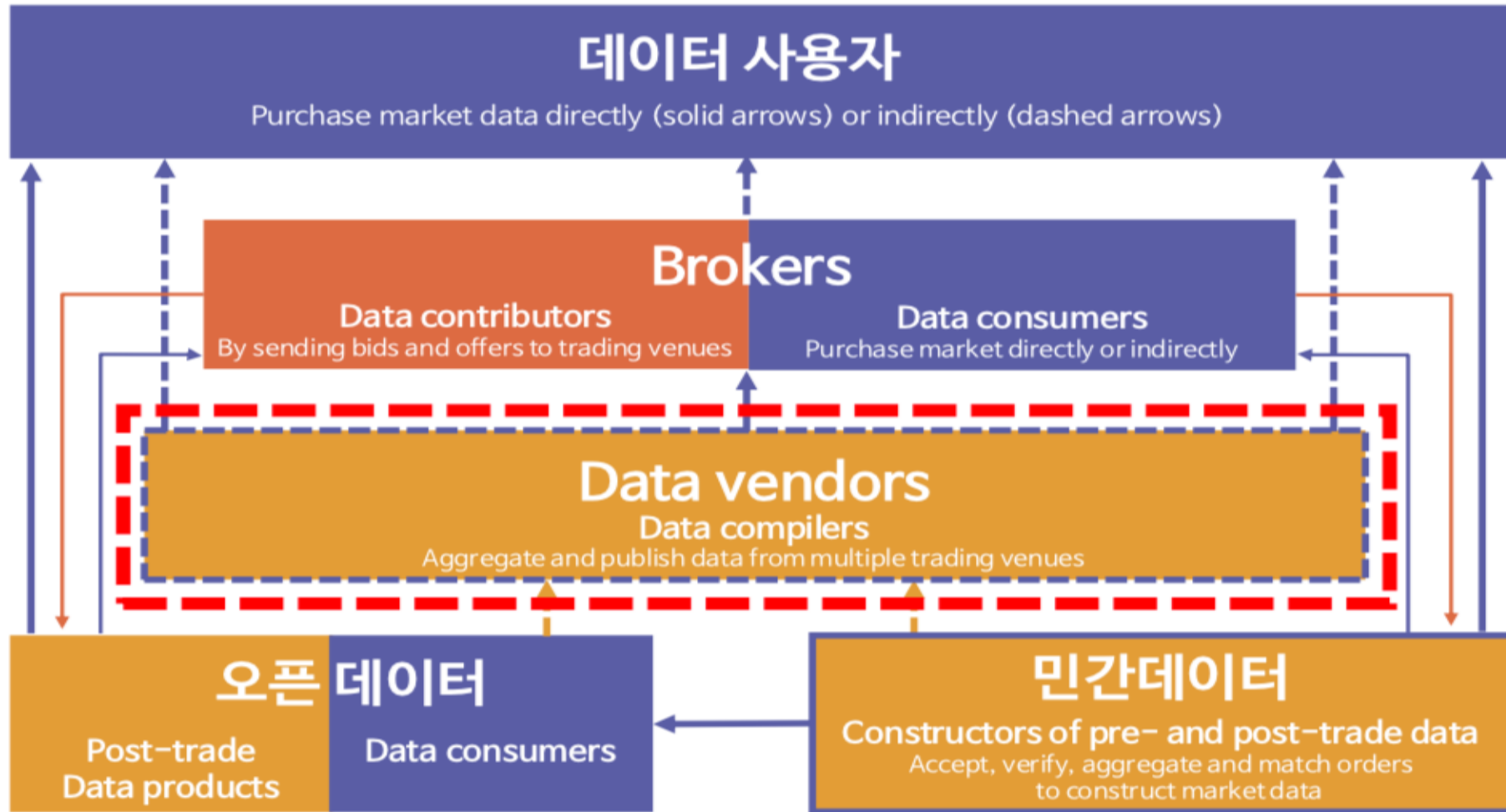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과 AI,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위해 폭넓게 활용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간 데이터를 결합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만들어 통신, 유통, 금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 발생



# 데이터3법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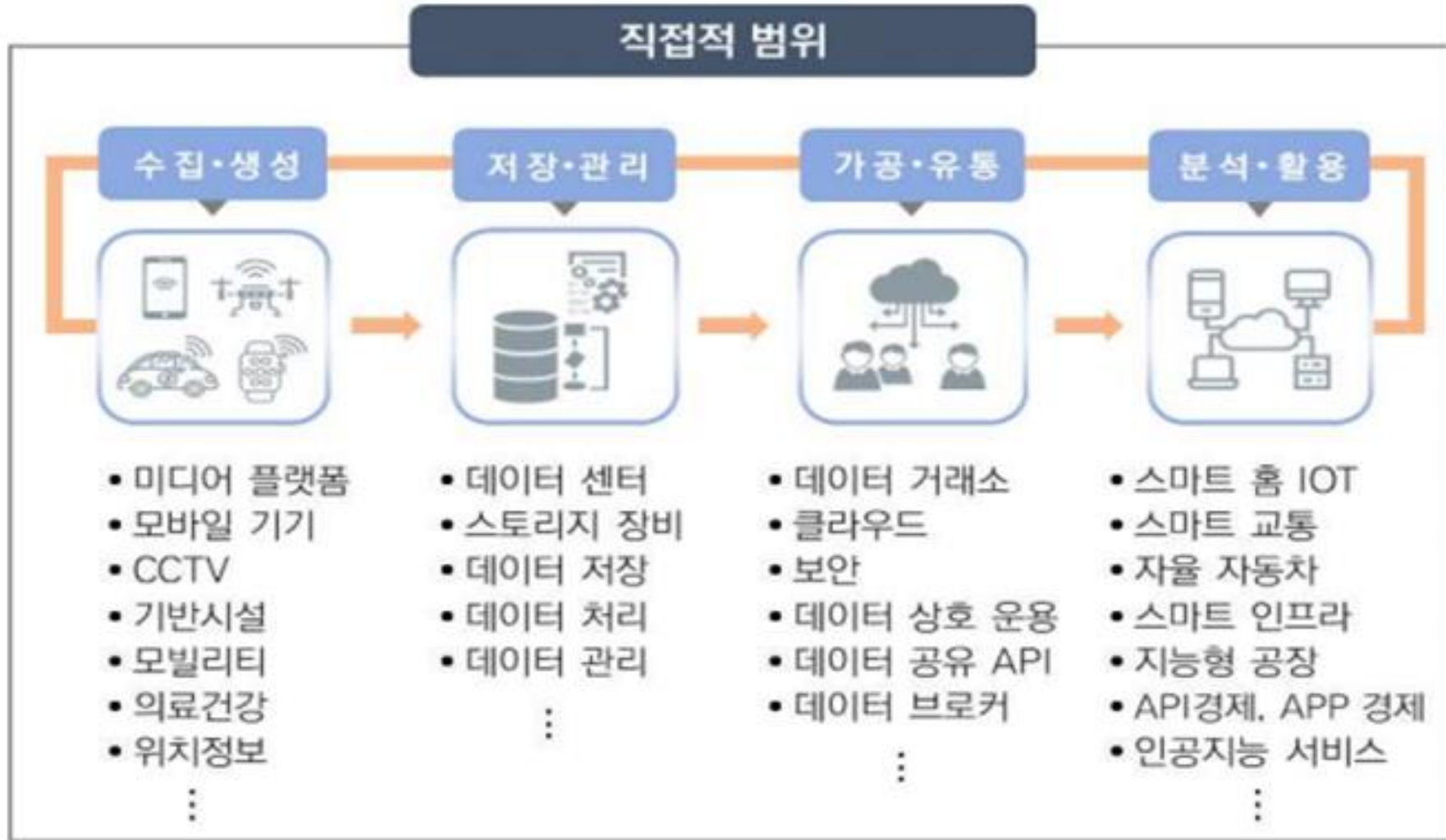
- 가명처리한 정보도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속해서 정보주체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권한을 뺏게 됨.
-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손쉽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존재
- 데이터 개방을 얻는 이득은 기업이 모두 가져가고 정보주체인 국민은 프라이버스 침해에 노출

# 데이터 경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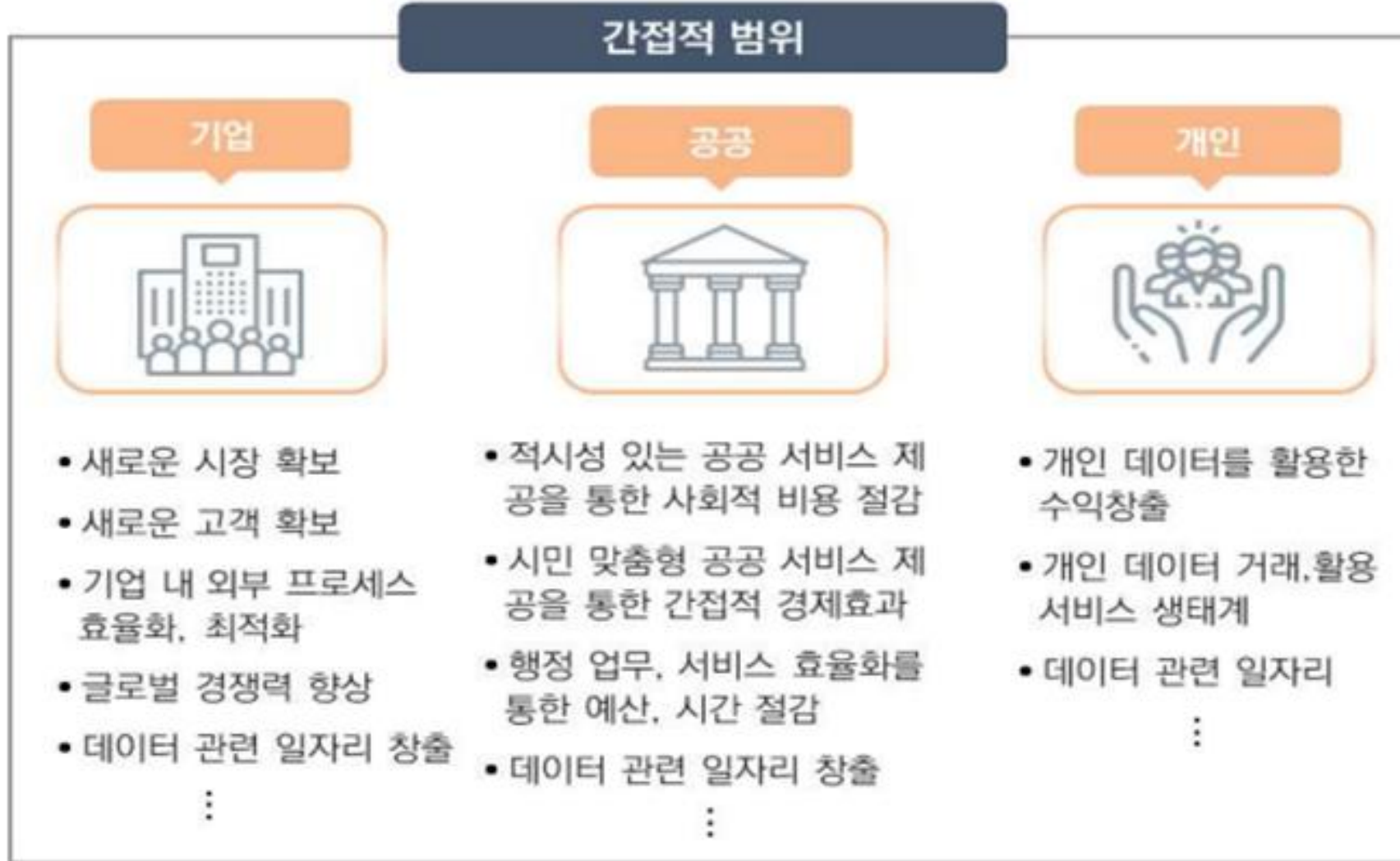
자료: 김옥기(2019)

# 데이터 경제 직접적 범위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 데이터 경제 간접적 범위



# 해외 데이터 경제 동향

국가	도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차원에서 빅데이터 7대 R&amp;D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여 미래 빅데이터 환경 변화에 대응</li> <li>- 빅데이터 기술개발과 의사결정 도구 R&amp;D 지원, 빅데이터 인프라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접근 추구, 빅데이터 인력 확충과 협력 생태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이상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기업, 500개 응용서비스 기업 육성</li> <li>- 데이터 개방 확대, 플랫폼·오픈소스 기술 지원, 빅데이터 전문 SW 수준 향상, 전문인재의 공급, 데이터 거래소등 생태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내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접근·분석·활용·강화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li> <li>- 데이터 접근권 강화, 기술 표준 제정, 법적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정으로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합법적 데이터 유통 동시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신성장 전략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기반 구축</li> <li>- 새로운 사회의 인프라로서 데이터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향한 제도 정비, 교육·인재 역량강화, 혁신 벤처 선순환 시스템 구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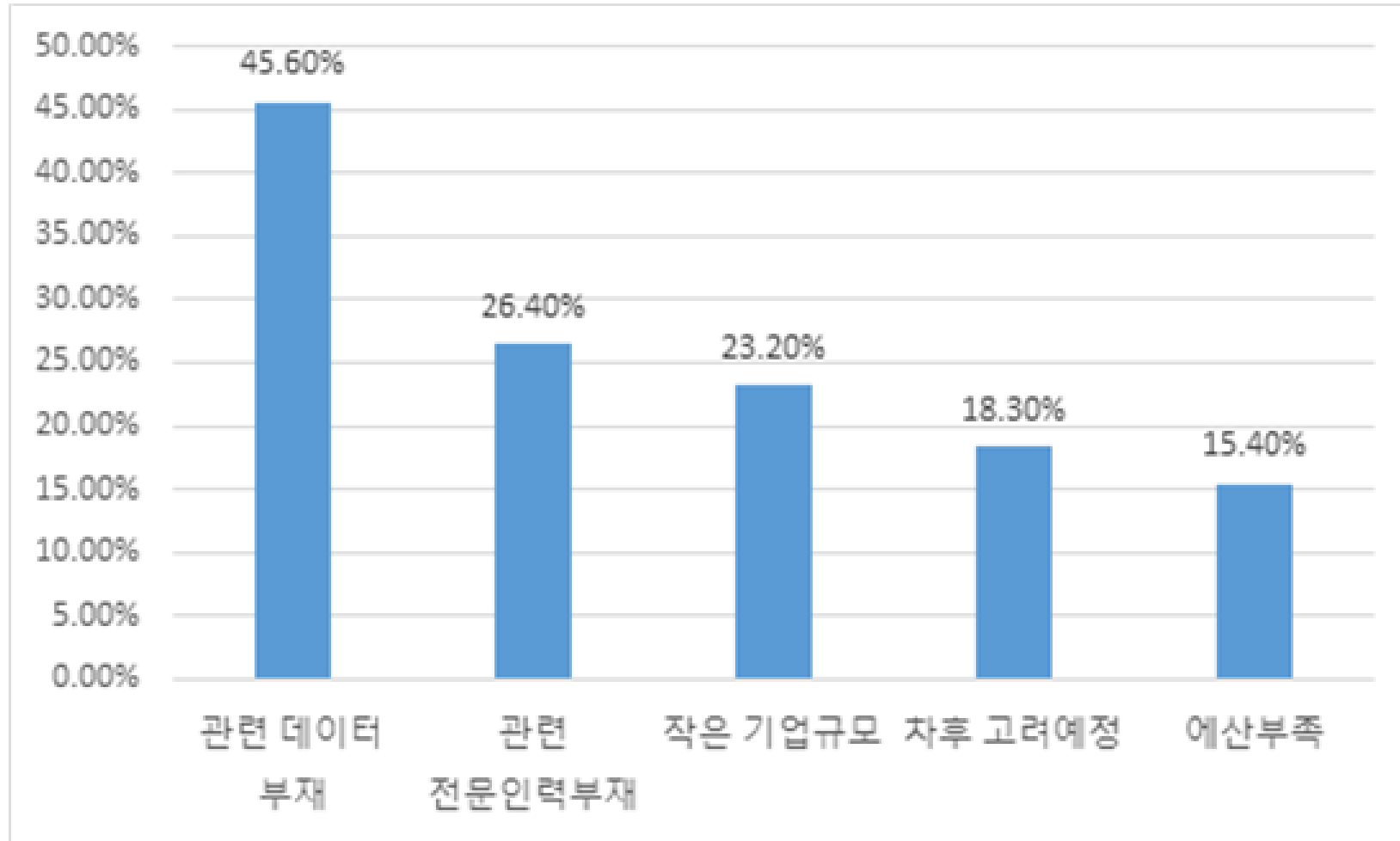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 해외 주요 기업 현황

기업	현황
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의 75%가 자사 제품에 부착한 <u>센서데이터</u>를 통한 유지보수에서 발생</li> <li>- 자사가 취급하는 선박·항공기엔진·발전소터빈·의료기기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li> <li>- 연간 200억 달러의 이익 창출을 예상</li> </ul>
<u>테스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 데이터를 분석해 영국·아일랜드 3,000개 점포에서 냉장비용 연 20% 절감</li> </ul>
지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설비에서 발생한 데이터 분석, 생산라인을 재조정, 생산량 8배 증가</li> </ul>
코마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40만대의 건설장비 가동상황 데이터를 GPS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해 수요 예측과 수리, 중고차 가격결정 등에 활용해 10%가 넘는 영업이익을 제고</li> </ul>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걸림돌



자료: 과기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일국의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서비스를 포함한 생산물을 그때의 시장가격으로 합계한 것.
- 한 나라가 일정기간에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
- 1980년대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주로 사용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
- 보통 1년 기준으로 측정하여 국가간 경쟁력을 비교
- 1980년대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복지를 측정하는데 국내총생산이 더 적합하여 국내총생산으로 나라간 경제 규모를 비교
- 지역내총생산의 합이 국내총생산임.
- 2020년 기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 대한민국(10위) 순

# 데이터 경제 패러다임 전환 특성과 내용

특성	주요 내용
플랫폼과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에서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플랫폼은 서로 다른 수준의 통합, 상호 운영성, 자료 공유 및 개방성을 가진 생태계로 기능하게 됨.</li> <li>-시사점: 충분한 경쟁 수준을 유지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li> </ul>
대중없는 규모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는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며, 적은 수의 직원으로도 인터넷을 활용해 시장을 전세계로 확대할 수 있음.</li> <li>-시사점: 시장 진입과 혁신에 대한 장애물을 철폐하고, 근로자 수에 기반한 정책 접근법을 변화시켜야 함.</li> </ul>
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활동은 정책적 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과정과 활동을 설정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함.</li> <li>-시사점: 정책적 원칙은 빠르게 <u>시의적절성</u>을 잃을 수 있는 세부적 규정보다 선호될 수 있음.</li> </ul>
넓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화는 많은 기능을 가진 복잡한 제품의 생성을 촉진하고 제품과 기업, 산업 간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함.</li> <li>-시사점: 다양한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이 요구되며, 세부 규정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용될 원칙의 중요성이 높아짐</li> </ul>
무형의 자산과 가치 창출의 새로운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와 데이터와 같은 무형의 자산이 보다 많은 투자를 받음.</li> <li>-시사점: <u>정책입안</u>가는 디지털 혁신, 생산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li> </ul>
사용자의 권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의 <u>엔드투엔드</u> 원칙은 사용자가 자체적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li> <li>-시사점: 디지털 보안, 데이터 관리, 노동, 사회 정책 등은 대규모 기관 중심에서 개인으로 초점을 변화시켜야 함.</li> </ul>
공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컴퓨팅 자원은 어디서나 저장되고 활용될 수 있으며, 지리적 한계의 극복이 가능함.</li> <li>-시사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정책은 가치 창출과 분배 과정을 고려하도록 수정되어야 함.</li> </ul>

자료: 과기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OECD(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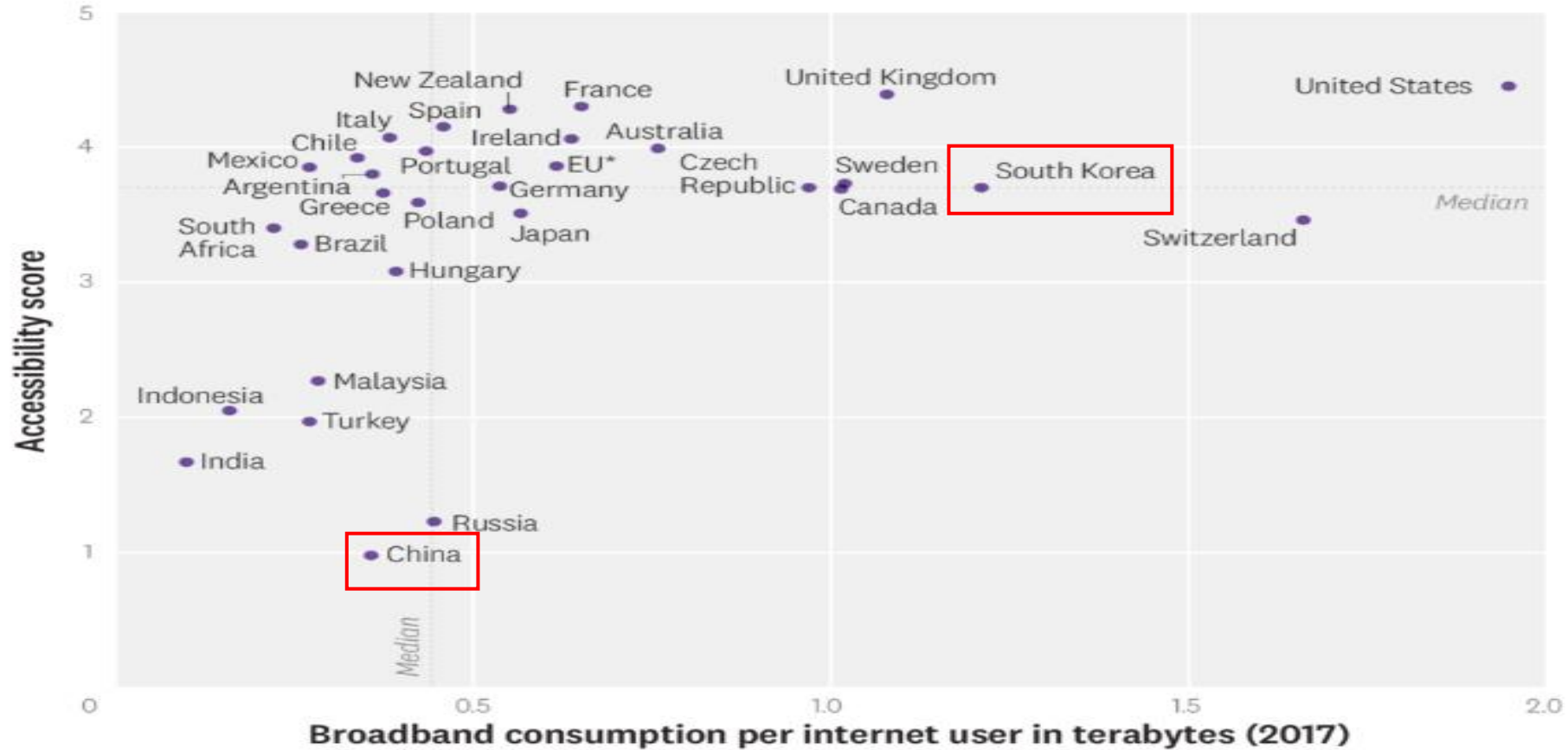
# 데이터총생산(Gross Data Product)

-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경제논리가 과학기술 활동을 좌우하고 있는 시점
- 이에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를 데이터총생산(GDP)로 정의하고 측정(미국 터프츠 대학교 Chakravort, Bhalla, Chaturvedi, 2019)
- 신 경제지표로 신 데이터총생산(New GDP)를 제안

# 데이터총생산 구성 요소

- Volume; 국가에서 사용하는 광대역의 절대량, 생성된 원시 데이터의 프록시 개수임.
- Usage;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사용자의 수로서 사용 행동의 폭, 요구 및 콘텐츠에 대한 프록시 개수임.
- Accessibility; 데이터에 대한 제도적 개방성은 한 국가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여러 인공지능 연구자, 혁신가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더 넓은 사용성과 접근성을 허용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산출
- Complexity; 디지털 활동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요소로 흔히 1인당 광대역 소비량임.
- Openness;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DB, 전자화된 파일을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

# Accessibility vs Complexity



자료: Chakravort, Bhalla, Chaturvedi(2019)

#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순위

순위	국가
1	미국
2	영국
3	중국
4	스위스
5	대한민국
6	프랑스
7	캐나다
8	스웨덴
9	호주
10	체코
11	일본
12	뉴질랜드
13	독일
14	스페인
15	아일랜드
16	이탈리아
17	포르투갈
18	멕시코
19	아르헨티나
20	칠레

자료: Chakravort, Bhalla, Chaturvedi(2019)

# 데이터 기본법 제안이유

-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
-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 이에 데이터 산업 육성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데이터 기본법 추진 현황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총 34명 의원 참여(2020.12.8)
- 과방위(2021.9.14), 본회의(2021.9.28), 국무회의(2021.10.12) 의결 및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작업등을 거쳐 2022. 4월 부터 시행 예정
- 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을 중심으로 데이터이용촉진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안(허은아의원), 데이터산업진흥법안(이영의원) 등의 유사법안과 병합된후 국회 통과/의결



# 데이터 기본 법안 주요 내용 I

- 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영상·음성·음향 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데이터 기본 법안 주요 내용 II

- 라.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10조).
- 바.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 데이터 기본 법안 주요 내용 III

- 사.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을 신설함(안 제13조)
- 아.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함(안 제15조).
- 자. 개인인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함(안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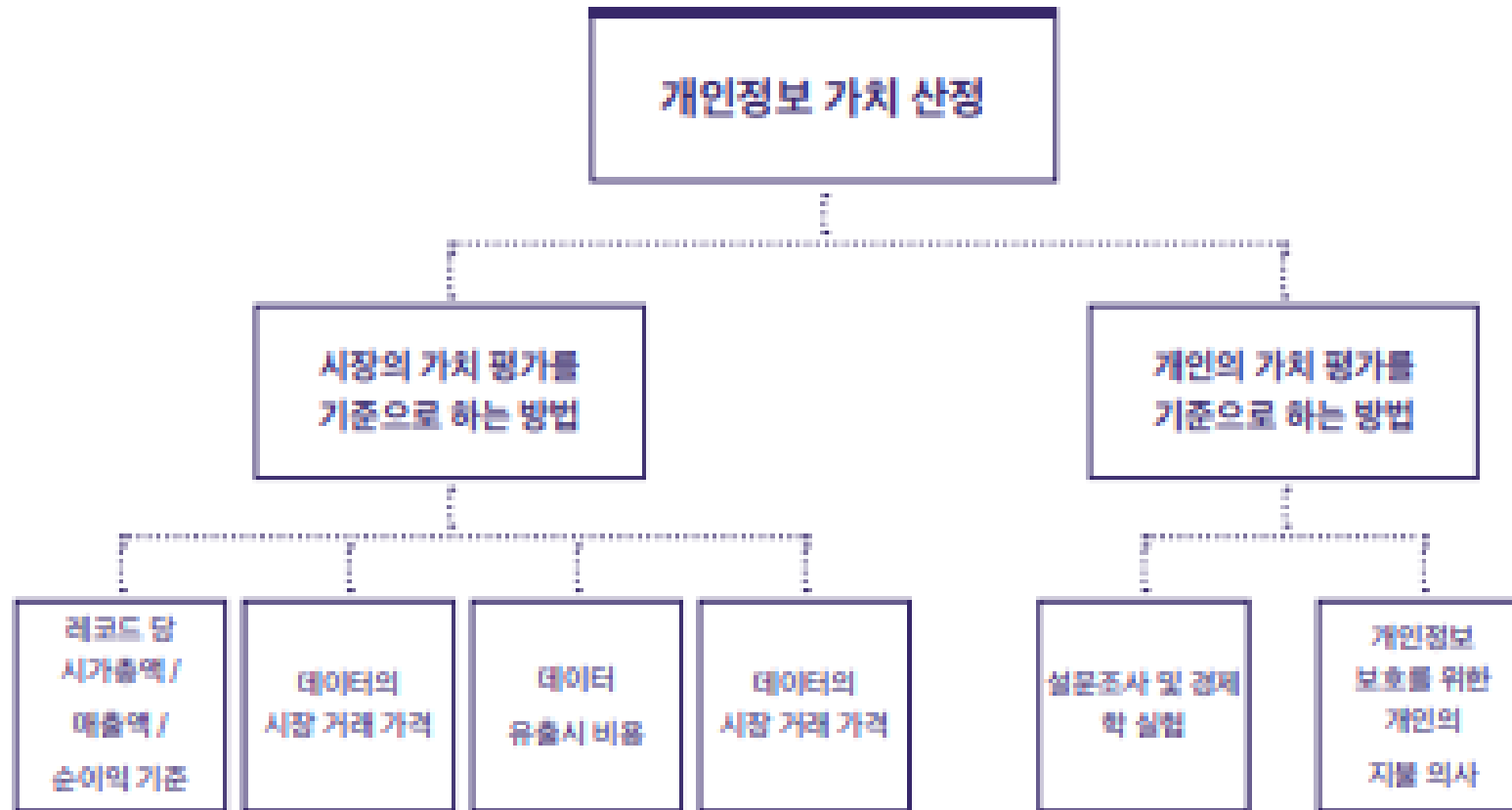
# 데이터 기본 법안 주요 내용 IV

- 차. 정부가 데이터 거래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카.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데이터 기본 법안 주요 내용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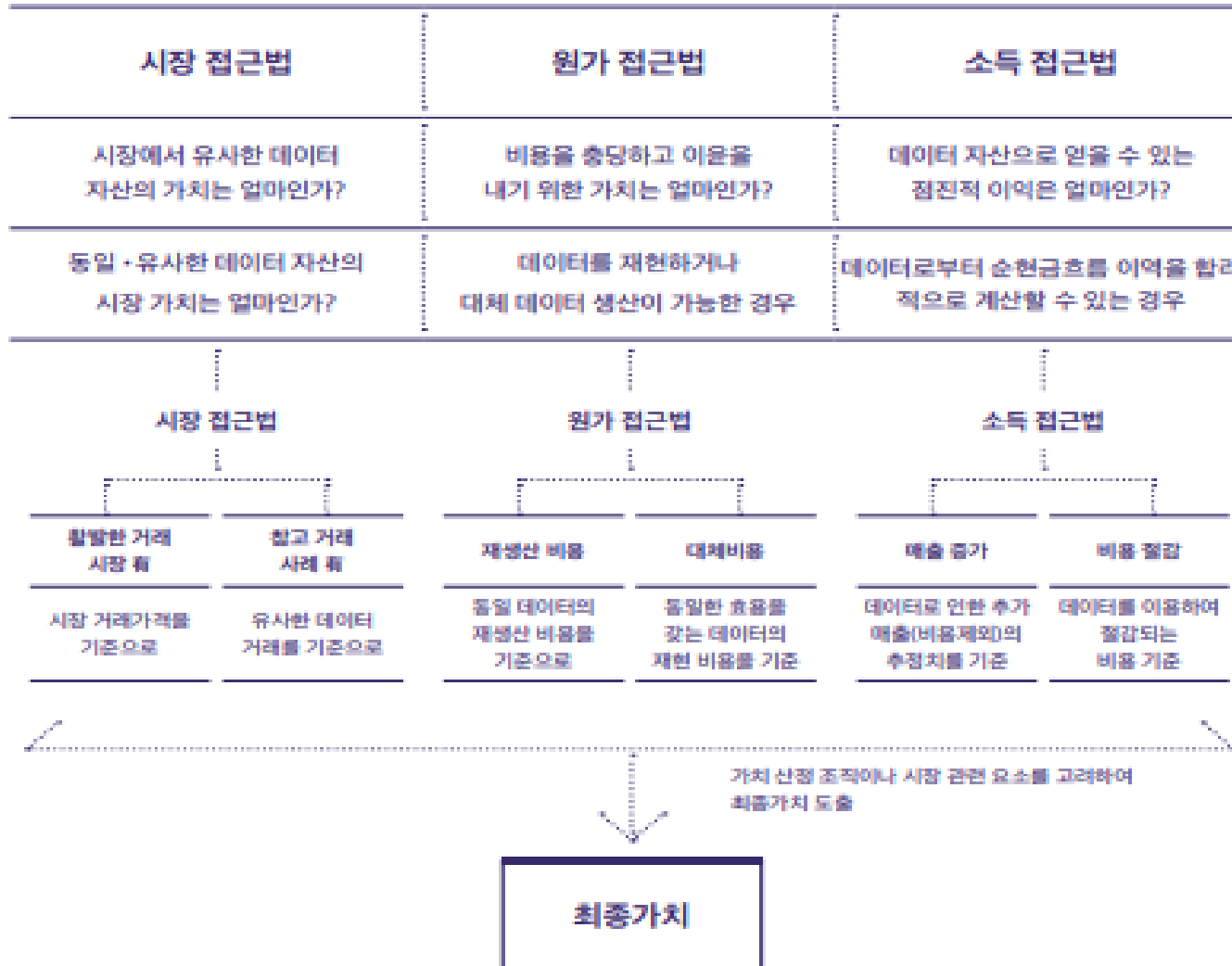
- 파. 정부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 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5조).

# 개인정보 가치 산정



자료: 김병필(2020)

# 데이터 가치 평가 가이드



\* 싱가포르 정보통신 개발청 (IMD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DC)가 2019년 발간한 "데이터 가치평가 가이드"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자산평가 모델을 적용 하여 시장 접근법, 원가 접근법, 소득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를 종합하여 데이터의 최종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

# 데이터 가치 평가사 & 인력양성

- 데이터 가치 평가사 국가 공인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지정 필요
- 데이터 특성 고려한 표준화 및 교육 체계 마련
- 데이터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전문 기관 필요



# 제안

- 데이터 경제시대 새로운 혁신지표인 신데이터총생산(New Gross Data Product) 관리 및 모니터링
- 지표: Volume, Usage, Accessibility, Complexity, Openness
- 데이터 가치 평가 방안 마련하여 국가 공인 데이터 가치평가사 자격증 발급 및 데이터 인력 양성

감사합니다.  
supark@hanbat.ac.kr